팩트체크+ 보고서		미디어연대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2020-1주차	발행일: 2020년 1월 6일(월)	www.medianetwork.kr
연락처	(02) 741-7662 (유은실)	FAX (02) 741-7663
참여위원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1주차)

- 대상 매체·프로그램 : KBS뉴스9, JTBC뉴스룸
- 대상 기간 : 2019년 12월 30일(월) ~ 2020년 1월 5일(일) 7일간
- 참여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 보고서 발표일 : 2020년 1월 6일

차 례

Ⅰ. 종합 분석 (전수 조사) ……2

Ⅱ. KBS의 이낙연 총리 특별대담 '불공정성' ……5

Ⅲ. KBS의 신년 김정은 상징성 '무비판 수용 보도' ……8

Ⅳ. 문재인 정권의 3권 분립 헌법 정신 무시와 '비판정신 없는 KBS' ……11

Ⅴ. JTBC뉴스룸 팩트체크의 '자의성·편파성' ……13

* 참고 말씀 ……16

Ⅰ. 종합 분석 (전수 조사)

● 공정성 잃은 '이낙연 인터뷰 기사'

: 'KBS뉴스9'과 'JTBC뉴스룸'에서 각 1건씩 이낙연 총리 단독대담 보도를 했는데, 메인뉴스의 골든타임에 출연시켜 대담하면서 '탄핵 문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 의견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여야 관계 인사간 균형적 출연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간 출연일정을 확정해서 공표한 다음 방송하도록 시청자와 약속해야 하는 사안임.

<KBS뉴스9>

[이낙연 총리와의 특별대담] (2020.1.2/목)

<JTBC뉴스룸>

[인터뷰]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 흐름…최종조율 필요" (2019.12.30/월)

● 편파적인 여야 지도자에 대한 보도

: <KBS뉴스9>에서, 여권 지도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전하는 단독 보도는 대통령 2회, 이낙연 총리 1회, 추미애 법무장관 2회임에 반해, 야권 지도자 보도는 1건(황교안 한국당 대표)이었는데 조롱성 보도였음.

(2019.12.30.) 문 대통령 "'식물·동물국회'에 국민만 희생양…'볼모 법안' 놓아달라"
(2020.1.2.) 文 "대통령 권한으로 권력기관 개혁"…'檢인사권' 시사
(2020.1.2.) [인터뷰] 이낙연 총리 "총선 통해 탄핵 갈등 정리"
(2020.1.2.) '추미애표' 인사 임박…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초동 폭풍전야
(2020.1.3.) [앵커의 눈]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국민적 요구 최고조"
(2020.1.4.) 황교안 던진 '험지 출마론'…진짜 '험지'는 어디?

● 경제위기 문제를 제외한 편향적 'KBS 신년여론조사'

[신년여론조사①] 처음 만난 사람보다 못 믿어…'국회·언론·검찰' 불신 (20.20.1.1/수. KBS뉴스9 톱3)

[신년여론조사②] 소득격차 역대 최소지만…OECD 하위권에 자산격차 벌어져 (20.20.1.1/수. KBS뉴스9 톱4)

[신년여론조사③] 여성, '경력 단절'에 한 번 울고, '임금'에 두 번 운다 (20.20.1.1/수. KBS뉴스9 톱5)

[신년여론조사④] "공정과 안전"…2020 한국사회 핵심 가치 (20.20.1.1/수. KBS뉴스9 톱6)

● **북한 김정은 뉴스 상징성 부각으로 다수 보도. 비판적 시각은 없어.**

<KBS뉴스9' 6건 보도>

(2019.12.30.월) [앵커의 눈] 北 사흘째 전원회의…김정은 '새로운 길' 찾나?

(2019.12.31.화) 北 유례없는 연말 당 전원회의…김정은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 결심"

(2020.1.1./수) 김정은, 핵실험·ICBM발사 재개 시사…새 전략무기 공개 예고

(2020.1.1./수) 北 구체화 된 '새로운 길'…'정면돌파' 23번 언급

(2020.1.2./목) [앵커의 눈]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2020.1.2./목) 北 당 부장 2/3 교체…전략무기 개발 주역 약진

● **정치권 뉴스 여야간 편파적 보도. 청와대와 여권은 긍정적, 야권엔 부정적**

: <KBS뉴스9>은 제1야당의 '선진화법 위반 강조' 보도가 14건이나 된 데 반해,

청와대 등 정권 실세들의 선거법 위반(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보도는 4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후순위에 간략보도 또는 단순 사실보도에 그쳤으며,

역시 청와대 실세가 개입한 조국 등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 보도는 0건이었음.

조국 기소 뉴스도 2건에 그쳤고 그것 마저 중립적으로 보도했음.

[사례1]

<야당의 선진화법 위반 보도 14건>

(2019.12.30) 문 대통령 핵심 공약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은 퇴장

(2019.12.30) 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바뀌나…"위헌" 반발도

(2019.12.30) 문 대통령 "'식물·동물국회'에 국민만 희생양…'볼모 법안' 놓아달라"

(2019.12,31) 한국, 의원직 총사퇴 결의…"민주주의 일보 전진"

(2019.12,31) '뜨거웠던' 민의의 전당…정치의 실종?

(2020.1.2.)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2020.1.2.) 한국당 '국회법 위반·공동감금' vs. 민주당 '공동폭행'…어떻게 다른가?

(2020.1.2.) 당선돼도 유죄 확정시 의원직 '우수수'…공천 딜레마

(2020.1.2.) 9개월 수사, 공수처법 통과 3일 만에 기소…의미는?

(2020.1.3.) 선례 없는 선진화법…황교안 발목 잡나?

(2020.1.3.) 판검사 출신 야당 의원만 불기소?…형평성 논란

(2020.1.4.) '국회선진화법 위반' 또 고발 예고…'기준 판결' 나올까?

(2020.1.5.)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명에 '의원직 상실형' 구형

(2020;1.5.) '선진화법 주역' 원혜영·김세연이 말하는 정치혁신

<청와대·여권실세의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보도 4건>

(2019.12.31.) 송병기 구속 갈림길…‘선거 개입’ 소명되나?
(2020.1.1.)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선거 개입 공모’ 소명 부족”
(2020.1.3.) “추미애 측에 문자 보고”…송병기가 지속 접촉?
(2020.1.4.) 검찰,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울산시청 등 압수수색

[사례2]
: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범죄혐의자 조국의 말만 인용 긍정평가만 보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한다,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2019.12.30.)

<조국 기소 관련 보도>
(2019.12.31.) 검찰, 조국 전 장관 기소…조국 측 “정치적 기소”
(2019.12.31.) “넉달 조국 수사…나눠진 사회, 결론은 법정에서”

● 정치현안 관련 언론 본연의 정권 비판적 ‘KBS뉴스9’ 보도는 1건에 불과.
(2019.12.30.) 돌아온 ‘친노’ 이광재…코드 사면? 총선 영향 ‘촉각’

● ‘JTBC 뉴스룸 팩트체크’의 자의성·편파성
(2019.12.30.) [팩트체크] "문 정권 들어 화재 늘어" "간첩 소행"…또?
: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 군부대 화재 등에 대해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그러한 화재들이 북한 간첩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 물론 추정의 근거도 없지만 JTBC 자신들이 확인하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님. 경찰 관계자 등의 주장을 전했는데 그것 만으로 허위정보라든가 음모론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안됨. 해당 유튜버는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평가성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을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음.
(2019.12.31.) [팩트체크] 또 나온 '총사퇴' 카드…한국당에게 득 있나?
: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재. 만일 한국당이 총사퇴는 반드시 성사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면 총사퇴가 가능한지 여부 정도는 팩트체크 대상으로 다룰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보도를 보면 한국당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총사퇴를 말한 것임. (이상)

Ⅱ. KBS의 이낙연 총리 특별대담 '불공정성'

1. 방송내용

○ 지난 1.2(목) KBS <뉴스9>에서 밤 9시 17분경부터 이낙연 총리를 출연시켜 10분 정도 대담했음.

○ 앵커는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고, 새해를 맞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밝히고, "오늘 이낙연 총리와 함께 한다"고 했음.

○ 이낙연 총리의 종로출마이야기부터 대선지지도 1위 이야기 등에 대해 이야기함.

- 앵커는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번 총선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의미를 물었음.

-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이 그 분수령이다"라고 대답했음.

-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불행한 일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상처 같은 것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이른바 '비토크라시'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나아가 "이번 선거법 개정은 다당제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한국 정치문화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제까지의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음.

- 이날은 KBS, MBC, SBS 메인뉴스를 비롯하여 많은 매체에서 일제히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무더기 기소를 톱으로 다뤘는데, 선거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했음.

- 앵커는 "총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한다"며 이낙연 씨를 대

선후보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았음.

○ 대담이 끝날 무렵 앵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출연요청을 했다면서, 대담 날짜가 정해지면 방송하겠다”고 보도했음.

2. 팩트체크

○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를 단독으로 KBS 메인뉴스의 골든타임에 출연시켜 대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선거법 개정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견을 방송한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야 할 경우에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공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방송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봄.

○ 현재까지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총리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출연하겠다는 확답이 없는데도 이낙연 총리부터 단독으로 출연시킨 것은 문제가 있음.

○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다룰 경우 우선 프로그램 내에서 균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출연진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에 동일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을 경우, 균형성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간 출연일정을 확정해서 공표한 다음 이시에 방송하도록 시청자와 약속해야 할 것임.

3.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방송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제5조(공정성) ②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①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

Ⅲ. KBS의 신년 김정은 상징성 '무비판 수용 보도'

- 북한 김정은 중심 보도 12월 30일 ~ 1월 5일 까지 모두 6건이나 무비판 보도.
- 특별히 의미 없는 기사와 내용(상징성)을 많이 언급됨.

(모니터 의견)
북한 당대표 회의 1000명 참가, 노동당 전원회의 제7기 5차 전원회의.
28~31 4일간. 1000명이 김정은 말을 받아적고 있었다.
그 시간이 장장 7시간이었다.
그 때 대중매체는 통합을 강조(mass communications as instruments for unity).

4일간의 경향은 주로 김정은 부각, '새로운 길', '새로운 전략무기', 말탄 김정은 등 상징 조작 등이 주류를 이룬다.
북한은 상징을 조작으로 당의 일치감을 유지하고, 김정은은 권력과 부를 독점한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상징을 만들고 그 상징에 대해 성역(聖域)을 설정하고, 해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의 언론자유는 북한 집단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상징을 조작하는 주관자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북한사회에서 신격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KBS보도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 범위 안에서 +α를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 논리라면 KBS는 북한의 상징조작에 말려든다.

반면 대한민국 언론은 성역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도 잘 못이 있으면 탄핵까지 한다.
그 만큼 언론자유가 중요하고, 콘텍스트가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서 콘텍스트는 신체적 콘텍스트, 상황적 콘텍스트, 문화적 콘텍스트 등이다.
콘텍스트, 즉 내용 없는 상징은 선전, 선동술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라면 KBS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권력을 부여하고, 부를 퍼주기를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국내 기사가 복잡하니, 북한 관련 보도나 하자는 논리여도 문제가 있다.

(해당뉴스1) -2020.1.2./목 보도
[앵커의 눈]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다음기사*北 당 부장 2/3 교체…전략무기 개발 주역 약진*

☞ 백두산과 김정은을 부각시키는 사진이다. 백마타고 오는 영도자...신격화한 상징이다. 김정은 핵무기를 갖고 선군정책, 강군정책을 펴고 있다.

[앵커]
현대전에서 전략무기는 핵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 등을 말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고 주장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실제 기자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보도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전략 무기'가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이라고 한다. 유튜브야 중성자탄이란 소리를 할 수 있지만, KBS가 카더라 방송은 문제가 있다. ICBM에 대한 정확한 콘텍스트가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다.

(해당뉴스2) -2020.01.01. 수요일 보도
北 구체화 된 '새로운 길'…'정면돌파' 23번 언급
[앵커]
보신 것처럼, 북한의 당 전원회의가 결정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북미대립과 제재의 장기화, 또 '정면돌파'로 보입니다.
통일외교부 이효용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신년 구호가 '정면돌파'입니다. 이게 그동안 예고해온 '새로운 길'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게 올해 북한의 핵심 구호입니다.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보면, '정면돌파', '정면돌파전'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큰 고민, 바로 경제발전인데, 지난 2년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제재를 풀 생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립과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제재를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한 외교력 강화, 군사력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다시 한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명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 ICBM을 쏘겠다는 노골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강조한 걸 보면,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했는데도, 미국은 거꾸로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는 북한이 스스로 한 약속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만, 사실상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 북한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했네요?
[기자]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를 시간끌기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의 태도를 '강도적 태도'라고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당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실제행동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략무기는 전쟁의 판세를 바꿀 정도의 무기라는 뜻으로 통상 핵이나 ICBM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멀지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섣불리 '레드라인'을 넘기는 힘들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Ⅳ. 문재인 정권의 '3권 분립 헌법정신' 무시와 비판없는 KBS

(모니터 의견)
신거법, 공수처법 등 대선 공약은 헌법정신에 맞아야 하고,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고, 각 기관은 견제와 균형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검찰·법원·국회 등을 '공수처법'으로 행정부가 통제를 하면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감시·사회의 연계·사회화 기능임. 언론이 선전, 선동, 조직자 등 기능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해당 뉴스1) -2019.12.30(월)
〈문대통령 ''식물·동물 국회'에 국민만 희생양..'불모 법안 놓아달라'〉
앵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식물국회', '동물국회' 때문에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병도 기자: 청와대 전 직원에게 생중계된 올 마지막 참모 회의,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임을 다시 절감한 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국민의 응원으로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면서, 조국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20대 국회 4000개 입법 통과예정)로 '식물국회'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연됐다고 비판했습니다..'이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할 일몰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이병도 기자)

(해당 뉴스2) -2019.12.30(월)
〈문 대통령 핵심 공약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은 퇴장〉
앵커: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2시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처 논의가 세상에 나온지 무려 23년 만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탄생하면서 앞으로 검찰개혁 논의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강나루 기자: 이탈표를 노린 한국당의 마지막 카드,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 퇴장했고요. 7시 2분, '4+1 협의체' 공수처 법이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와 한국, 두 당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수석 대변인 : "검찰개혁과 공정정의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재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화운동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이 날치기 처리..."
기자: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한다,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망: 다음 회의에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한국당은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끝)

(모니터 의견)

KBS가 수사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발언권을 주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남.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준에서 말아야 할 것을 청와대가 갖고 와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KBS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지 못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수처 설치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판사·검사·경찰, 국회의원·대법원장 등을 수사토록 한다.

특이할 점은 '범죄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라고 했다. 검사,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는 KBS 보도(KBS 강나루 기자)는 문제가 있다.

Ⅴ. JTBC뉴스룸 팩트체크의 '자의성·편파성'

1. 12월 30일 방송

- 꼭지명 : <10년 만의 복직 앞두고…쌍용차, 46명에 일방적인 무기한 '유급 휴직' 통보>

쌍용차 복직 예정 노동자 46명 유급 휴직 통보 관련 뉴스. "약속을 못 지키는 아빠가 됐어요" "애들하고 크리스마스 케익을 딱 사가지고 오는 시점이었어요" 등 쌍용차 노조원들의 감성 발언만 부각시킨 보도였다. 급여 7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인 점, 회사 경영난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들이 왜 유급 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는 보도였다. 회사의 입장도 듣고 상세히 전했어야 했는데 없었던 점은 이유 불문 노동자 우선주의 시각으로 객관적 보도로 보기 어렵다.

- 꼭지명 : <[인터뷰]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 흐름…최종조율 필요">

여권 대권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이낙연 국무총리 단독 인터뷰를 내보냈다. 총선 출마 관련 발언도 유도하며 사실상 특정 정치인 띄우기, 홍보성 보도였다. 이런 경우 제1보수야당인 황교안 대표 인터뷰도 섭외해 똑같은 시간과 비슷한 질문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모니터 기간(12/30~1/5) 내내 야당 대표는 출연하지 않았다. 뉴스룸이 섭외했는데 출연을 거부했는지 섭외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보도 자체만 놓고 보면 균형을 잃은 불공정 보도였다.

- 꼭지명 : <[팩트체크] "문 정권 들어 화재 늘어" "간첩 소행"…또?>

① 뉴스룸이 팩트체크를 한다며 보수유튜브를 사실상 비방, 왜곡보도한 경우다. 뉴스룸은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 군부대 화재 등에 대해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그러한 화재들이 북한 간첩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에 자신들이 팩트체크한다며 보도했다. 이 리포트는 그러한 사례로 A유튜버(목소리 주인공은 이봉규TV의 이봉규 씨)를 거론했다.

물론 해당 화제들이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볼만한 드러난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팩트체크 한다는 JTBC의 근거도 자신들이 확인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아닌 경찰 관계자 등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검경수사권조정 등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 울산시 선거부정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문재인 정권과 담합, 공범 수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화재 발생에 대한 경찰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이 허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한 화재사건들이

100% 허위정보라던가, 음모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미약하다는 얘기다.

② "문 정권 들어 화재 늘어" 이번 정부 들어 유독 군부대 화재 잦다는 유튜버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뉴스룸은 통계를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나 유튜버도 “이 정부 들어 불 무지 났다. 지금 간첩들이 엄청 많은데 드디어 군부대 보급창고까지 불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어떤 사건에 대한 유튜버 개인의 감정이나 평가는 팩트체크 대상이 아닌데도 뉴스룸은 이걸 대상으로 삼았다. 또 뉴스룸이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인 소방청 통계연보(2019)에 의하면 대형화재의 경우, 2018년은 15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해였다. (지난 10년간 소방청 통계연보) 유튜버 포함 일반 시민들은 현 정부 들어 화재 발생이 잦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뉴스룸이 ‘보수 유튜버 때리기’ 차원에서 트집잡기용으로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2월 31일 방송

- 꼭지명 : <[팩트체크] 또 나온 '총사퇴' 카드…한국당에게 득 있나?>

뉴스룸이 팩트체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보도였다. 팩트체크란 말 그대로 사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 자체는 팩트체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 한국당의 총사퇴는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재다. 만일 한국당이 총사퇴는 반드시 성사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면 총사퇴가 가능한지 여부 정도는 팩트체크 대상으로 다룰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뉴스룸 보도를 보면 한국당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총사퇴를 말한 것이다. 뉴스룸의 이 리포트 제목을 봐도 한국당에게 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팩트체크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 비난을 위한 목적이자 선동보도에 불과하다.

3. 1월 1일 방송

- 꼭지명 : <작년 수출 10%↓…'불매'에 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

뉴스룸은 “불매운동에 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일 무역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부진을 반영해 시설 투자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장비 수입을 대폭 줄인 게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많은 언론의 보도다. 반도체 산업이 주된 먹거리

인 우리로선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뉴스룸 보도 제목만 보면 마치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불매운동으로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들고 개선된 것처럼 느껴진다. 시청자를 가볍게 속이는 왜곡 보도다.

4. 1월 3일 방송

- 꼭지명 : <한국당 장외로…총선 지지 호소하며 전광판에 '후원계좌'>

제1야당이 장외집회에서 총선 지지 호소와 함께 후원계좌도 올렸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선거법 등이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기 때문에 **야당이 투쟁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장외투쟁이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암시한 부정적 보도**였다.

- 꼭지명 : <보수대통합 연일 강조했지만…한국당 집회엔 극우단체만>

한국당 장외집회엔 강경보수단체만 참가(전군구국동지회연합회, 신혜식 대표 등 언급)한다는 식으로 보도. 장외집회에 참석한 보수시민단체 전체를 극우로 매도. **한국당과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시민사회를 극우로 프레임화한 보도**였다.

■ 한 주간 보도 특징

1. ‘아베 때리기’ 반일선동보도 기조

- 도쿄올림픽 수구장서 '석면' 검출…2년 전 알고도 방치(12월 30일)
- "아베는 강하게 말했다"…또 '뒷말' 흘리는 일본 언론(12월 31일)
- [뉴스브리핑] '위안부 망언' 류석춘 강의 개설…학생들 반발(12월 31일)
- 작년 수출 10%↓…'불매'에 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1월 1일)
- '수출규제 6개월' 무역성적표…일본 출혈이 훨씬 컸다(1월 2일)
- 아베, 말로만 "관계개선"…징용문제엔 또 '녹음기 반복'(1월 2일)- 아베 때리기 형
- IOC "도쿄올림픽선 정치 시위 말라"…욱일기엔 침묵(1월 3일)

2. 전광훈 목사 공격

뉴스룸은 전광훈 목사에 부정적이거나 공격하는 기사를 약 일주일 동안 내내 보도했다. JTBC의 전광훈 목사 때리기. 정치인도 아닌 특정 개인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도로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전 목사의 정치발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비판 소지도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JTBC의 전광훈 때리기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인다.

- 전광훈, "구속될 리 없다" 주장하지만…31일 영장심사 (12월 30일)
- 법원 "한밤 빼곤 집회 허용"…전광훈 구속심사는 연기 (12월 31일)
- 전광훈, 신년 집회서 '총선용' 발언…2일 영장심사 (1월 1일)
- 전광훈 구속심사…"집회, 3·1운동-4·19혁명식으로" 주장 (1월 2일)
- 지지자들 집결…"구속돼도 괜찮다"던 전광훈, 혐의 부인 (1월 2일)
- 전광훈, 집회장 옆 주택 '임차료' 출처는?…경찰 수사 (1월 2일)
- 한기총, 대규모 집회 예고…경찰, 전광훈 영장 재신청 검토 (1월 3일)
- 전광훈 고발한 기독교단체 "영장 기각, 사법 역사 오점" (1월 3일)
- 영장 기각 전광훈, 집회재개 (1월 4일)

[참고 말씀 및 후원 요청]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